1. Summary of your algorithm

- GradientDescent라는 class를 만들어서 rating matrix를 matrix factorization을 하여 점 수를 예측함.
- latent feature의 경우, 그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RMSE 값의 변화를 관찰함
- GradientDescent에서는 단순리 user vector과 item vector 뿐만 아니라 각각의 user와 item에 대한 bias, 그리고 전체 matrix의 bias가 있다고 가정하여 진행을 함. 전체 matrix bias는 사용자가 응답한 점수의 평균을 활용하였다.
- user vector와 item vector 그리고 각각의 bias들은 user i와 item j만을 고려하여 업데 이트를 진행하였고, 따라서 반복 횟수를 x라고 하면 총 x * # user * # item 반복하였다. 따라서 각각의 user와 item에 접근할 때마다 예측하는 matrix를 변화시키면 그 속도가 느려져 각각의 점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얻기 위해 predict라는 메소드를 활용하였다.
- 학습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regularization term을 넣었다.
- 학습은 RMS Error가 0.001이 될 때까지 진행이 되었다.

2. Detailed description of your codes

- hyperparameter 설정 : 여기서 hyperparameter는 종료 조건, learning rate, regularization term coefficient, latent factor가 존재한다. 이 때 learning rate의 경우 그 크기가 너무 크면 최소값에 찾아가는 것이 아닌 발산을 해버려서, 0.9 이상으로는 설정 을 할 수가 없었다. 또한 그 값이 너무 작으면 학습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. 따라서 실험적으로 나머지 hyperparameter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learning rate이 0.01 정도면 충분히 작아서 발산을 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커서 빠른 시간 안에 학습을 할 수 있었다. regularization term coefficient의 경우도 learning rate와 마찬가지로 그 크기가 크면 발산을 하고, 그 크기가 작으면 regularization term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. 따라서 다른 hyperparameter를 고정시킨 뒤 그 값을 찾았을 때, 그 값의 변화에 따라서 0.01 -0.5까지는 큰 성능변화를 나타내지 않아서 가장 작은 값인 0.01을 활용하였다. 그 다음 종 료 조건은 그 크기에 따라서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. 0.1인 경우에는 그 성능이 RMSE 가 약 2 정도가 나왔고, 그 크기를 줄일수록 1.2에 근접해지다가 그 크기가 너무 작아지면, 다시 RMSE가 커지고 학습 시간 또한 많이 걸리게 되었다. 이러한 이유는 처음에 종료조건 이 너무 컸을 경우는 데이터의 특징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경우이며 그 조건을 더 줄이면 서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다가 너무 조건이 커지는 경우에는 주어진 데이터에 overfitting이 되며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. latent factor의 경 우, 그 크기가 너무 크면 충분히 학습이 되지 않아서 RMSE가 낮게 측정이 되었다. latent factor의 크기를 30으로 했을 때, RMSE는 약 1.7을 보였으며, 그 크기를 줄이면서 1.2에 가까워지다가 그 크기를 1로 하였을 때, 약 1.05 정도의 크기를 보였다. 우선 laten factor 가 많은 경우, 학습할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장 적절한 값을 찾았다.
- test 데이터의 user와 item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 train과 test data set을 읽어 드린

뒤, 그 중 가장 큰 user id 혹은 item id를 가진 것을 기준으로 matrix를 생성하였다. 이 는 u1-u4까지는 user id와 item id가 train이 전부 크거나 같지만. u5의 경우 test data 의 id가 더 큰 경우가 있어 이 때는 test id를 기준으로 rating matrix를 만들었다. test data의 rating은 들어가지 않았고 단순히 그 크기만을 고려하여 test data가 학습에 영향 을 미치지는 않았다. def globalBiasSet(self): # global bias를 평균으로 설정하였다. 학습을 시킬 때, 1 - 3까지 수를 넣어서 진 행을 해보았지만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여서 평균으로 진행 하였다. self.global_bias = np.mean(self.data[self.mask]) def predict(self,x,y): # user x가 item y에 대한 rating을 구하는 식이다. prediction = self.global_bias + self.user_bias[x] + self.item_bias[y] + self.user_vectors[x,:].dot(np.transpose(self.item_vectors[y,:])) return prediction def iteration(self): for i in range(self.users): for j in range(self.items): # 입력된 데이터만을 고려하여 학습을 진행 if self.data[i,j] > 0: # 필요한 예측값을 계산 prediction = self.predict(i,j) # error 계산 error = self.data[i,j] - prediction # user bias, item bias를 error를 기반으로 update self.user_bias[i] += self.learning_rate * (error - self.regular * self.user_bias[i]) self.item_bias[j] += self.learning_rate * (error - self.regular * self.item_bias[i]) # user vector, item vector를 error 기반으로 update self.item_vectors[j,:]) du = (error * (self.regular self.user_vectors[i,:]) di = (error * self.user_vectors[i,:]) - (self.regular self.item_vectors[j,:])

self.user_vectors[i,:] += self.learning_rate * du self.item_vectors[j,:] += self.learning_rate * di # 모든 item과 user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했으면 prediction update

```
self.prediction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elf.global_bias
self.user_vectors.dot(np.transpose(self.item_vectors)) + self.user_bias[:,np.newaxis] +
self.item_bias[np.newaxis,:]
       # 입력한 matrix와 예측한 matrix의 Error 측정
       cost = 0
       count = 0
       for i in range(self.users):
           for j in range(self.items):
               if self.data[i,j] > 0:
                   count += 1
                   cost += np.power(self.data[i,j] - self.prediction[i,j],2)
       cost = np.sqrt(cost)
       cost /= len(self.mask[0])
       cost = np.sqrt(cost/count)
       self.cost = cost
def train(self):
       # global bias 설정
       self.globalBiasSet()
       while True:
           # cost가 기준보다 높은 경우 학습을 진행
           self.iteration()
           # cost가 기준보다 낮은 경우 학습을 멈추고 결과 저장
           if self.cost < self.crit;</pre>
               self.model = self.prediction
               break
- RMSE 함수는 예측한 matrix의 결과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변환하고 오차를 계산해주는 함
  수이다.
def RMSE(post, label):
   output = 0
   # test의 개수 확인
   (row,column) = label.shape
   # output file의 내용 저장 배열 preallocation
   array = np.zeros(row*3).reshape(row,3)
   for i in range(row):
       # 결과 저장, rating의 경우 반올림하여 저장
       predict = post[label[i,0]-1,label[i,1]-1]
       array[i,0] = label[i,0]
```

```
array[i,1] = label[i,1]
array[i,2] = np.around(predict)
if array[i,2] > 5:
    array[i,2] = 5
elif array[i,2] < 1:
    array[i,2] = 1
answer = label[i,2]
output += np.power((predict-answer),2)
return np.sqrt(output/row), array</pre>
```

3. Instructions for compiling your source codes at TA's computer python recommender.py ux.base ux.test 입력

C:#Users#이찬호#Documents#GitHub#DataScienceProject#longTermProject>python recommender.py u1.base u1.test running time : 6.515318155288696 Test Result : 1.2289753299320718

- 4. Any other specification of your implementation and testing
- preuseMatrix의 활용 시도 : 연구 결과 중에서 preusematrix를 활용해서 사용자의 사전인지 정보를 예측하여 이를 가지고 성능을 향상 시킨 방식이 있다고 언급을 하셔서 구현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봄. zero-injection 방식의 경우 존재하지 않은 점수인 0점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1점이나 2점을 preusematrix의 예측된 값에 따라서 넣는 것을 진행해 봄. 하지만 preusematrix를 활용한 경우 그 결과의 RMSE가 1.7정도로 높게 나오고, 사용하지않았을 경우 1.2 정도로 낮게 나와서 사용하지 않음. 이 방법이 실패한 이유는 단순히 threshold를 잡아서 1과 2를 할당하였는데 이는 중요한 데이터 또한 복구를 해주지만, 오히려 데이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학습을 방해하여 이러한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함.
- WRMF의 활용 시도: WRMF의 방식은 Gradient Descent 방식과 달리 한 값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여 고정을 시키고 그 값을 가지고 다른 값을 찾는 방식이다. 즉 user vector를 안다고 가정하고 item vector를 찾고 item vector를 안다고 가정하고 user vector를 찾는 방식이다. 이 방식은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된다면 알맞은 답을 낼 수 있다. 하지만 개인적으로 구현한 코드는 항상 0과 1 사이의 값만을 가지게 되어서 rating matrix에 활용을할 수 없었고, 앞서 말한 것처럼 preuseMatrix를 예측하는데 사용하여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지만, preuseMatrix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WRMF는 구현하였지만 사용하지 못하였다.